

# 『綠牡丹』과 『조웅전』의 비교 연구

金 明 信\*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작품의 형성 배경
3. 등장인물의 분류
  - 1) 난세의 영웅-駱弘助, 趙雄
  - 2) 악행의 화신-王倫, 李斗柄
  - 3) 열혈녀와 숙녀-花碧蓮, 張小姐
  - 4) 민간 영웅과 구원자-鮑自安, 花振芳, 月鏡도사, 天官도사
4. 맺는 말

## 1. 들어가는 말

『녹모란』은 淸代의 작품이고 『조웅전』은 朝鮮시대의 작품이지만 모두 영웅소설로서 비교할만한 가치가 있다. 이러한 영웅소설 계열의 작자는 대부분 명확하게 추측해낼 수는 없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중하층 지식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영웅소설은 당시 민중들의 열망을 담아냈을 뿐만 아니라 왕조에 대한 반발심을 조금이나마 반영하였기 때문에 작자 자신의 성명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작품은 모두 그 당시 독자들에게 상당히 환영을 받은 작품들인데 이러한 영

---

\* 高麗大 中國學研究所 研究助教授

웅소설들이 널리 읽혀졌던 까닭은 대중소설의 통상적 주제인 권선징악을 실현함으로써 독자의 욕구를 매우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통치자들이 영웅소설에 대해 장려하는 측면도 있었다는 학설이 제기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청대 중기나 조선 후기는 모두 혼란한 시대로서 작품 중에서는 민중들의 현실을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과 이상적 세계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여 많은 독자를 끌어 들였을 것으로 보인다.<sup>1)</sup>

중국과 한국은 동일한 한자 문화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각자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왔다. 그런데도 중국과 한국의 작품에 대해서 명확한 차이를 규명하는 일 없이 유사성만을 논의하여 왔다. 이제 두 나라 작품의 문화적 차별성과 동질성에 대해서 세심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두 작품의 인물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 2. 작품의 형성 배경

『녹모란』은 19세기 초반에, 『조웅전』은 17~18세기 초반에서 19세기 초반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2)</sup> 이 시기는 왕조가 몰락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사

1) 중국의 영웅소설이 흥성한 원인으로는 첫째, 소설 자체의 발전, 둘째, 출판업의 흥성, 셋째, 통치자의 창작 지원, 넷째, 무술의 발전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하여 중국의 영웅소설은 특히 淸代에 유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청대에는 俠義小說과 愛情小說이 결합한 俠義愛情小說이라고 불리는 영웅소설 계열이 더욱 대량으로 출판되었다. 金明信, 『淸代 俠義愛情小說의 研究』, 고려대 박사논문, 2000. 41, 42쪽 참조.

2) 『녹모란』의 창작 연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19세기 초반(1830)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조웅전』의 경우는 조희용이 丙午年이라는 刊記가 적힌 것으로 추정하여 18세기 후반이나 혹은 19세기 초반으로 고증하고 있고 윤경수는 17~18세기 초에서, 후 혹은 19세기 초로 보고 있으며 송옥형은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초엽이라 주장하고 있다. 김명신, 『청대 협의애정소설의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00. 8. 46쪽, 조희용, 「『조웅

람들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다주었다고 볼 수 있다. 왕권에 대한 실망으로 인하여 영웅을 그리워하는 심리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사항이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녹모란』과 『조웅전』의 작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녹모란』의 작자는 미상이다. 비록 작자의 성명이 二如亭主人이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명칭일 뿐이고 그에 대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그와 비슷하게 『조웅전』의 작자도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작자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군담소설 모두가 '실세한 양반의 권력 회복 의식'이 반영된 작품으로 보여 진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sup>3)</sup> 『조웅전』 중에서 사용된 漢詩句, 漢文句는 한문에 대한 상당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었을 것이고, 반면 이를 애독했던 일반 서민 독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곤란했을 것이다.

영웅은 일반적으로 난세라는 무대 설정이 필요하다. 태평성세에는 그가 존재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알 수 없다. 그것은 그가 영웅성을 드러낼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어지러운 세상에 서민의 역경을 구제해 주는 영웅적 인물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인 것이다. 영웅의 존재는 곤경을 탈출시켜 주는 구세주이자 사람들의 이상이라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비교대상이 되는 『녹모란』과 『조웅전』의 영웅은 여러 사람으로 형상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출현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시대적 배경은 여러모로 유사성을 표출하고 있다. 『녹모란』의 경우는 唐代 武則天 시기로 적통인 廬陵王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사회적 혼란함을 드러내는 시기로 설정되어 있다. 『조웅전』은 宋나라 문황제 즉위 23년부터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지만 승상 李斗柄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결국 황제의 지위를 찬탈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두 작품은 모두 처음에 성세의 평화로운 상태를 보이는 듯하다가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전, 연구, 『한국학논총』 1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9. 2. 127, 128쪽, 윤경수, 『『조웅전』의 신화적 수용양상, 『한성어문학』 19, 2000. 7. 151쪽, 송옥형, 『조웅전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0. 7. 99쪽 참조.

3) 조희웅, 『『조웅전』 연구』, 『한국학논총』 1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9. 2. 120쪽 재인용. 서대석, 『고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70. 345-350쪽 참조.

영웅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배경을 표현해내고 있다고 하겠다.

### 3. 등장인물의 분류

영웅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상당히 많다. 중국의 영웅소설은 唐代 이후로 단독 주인공보다는 여러 영웅적 인물이 집단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 『녹모란』에서도 영웅적 행적을 보이는 여러 인물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인 駱宏助를 중심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조웅전』의 경우는 주인공이자 영웅 인물은 오로지 한 명인 趙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웅을 더욱 영웅답게 만드는 데에 일조하는 인물들이 있다. 그들은 비록 주변 인물이긴 하지만 영웅의 영웅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인물이라고 하겠다. 『녹모란』 중에는 민간에서 활동하는 인물이 주인공 駱宏助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鮑自安, 花振芳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조웅전』에서는 『녹모란』과는 그 양상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趙雄을 돕는 인물들 대부분이 초월적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조웅전』의 초월적 존재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망령이고 다른 하나는 도사이다. 망령의 예로는 조정인의 망령, 장진사의 망령, 황장군과 월랑의 망령, 역대 충신과 문제의 망령을 들 수 있다. 도선의 경우는 月鏡도사, 華山도사, 天官도사, 기타 갈건 야복의 노인 및 삼대 형제들의 스승인 도사 등이다.

『녹모란』이나 『조웅전』은 모두 고전 영웅소설에 속하는 작품으로 등장 인물들은 대부분 선악이라는 도덕적 잣대에 의해서 구분되는 인물이다. 작품 중의 인물은 영웅 인물, 악한 인물, 애정 인물, 구원자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물들이 한 가지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花碧蓮은 애정 인물이자 여

성 영웅의 역할을 하고 있고, 趙雄은 영웅이지만 애정 인물로 본다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속의 인물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유형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들의 두드러지는 행적으로 중심으로 유형을 구분하기로 하겠다.

### 1) 난세의 영웅 駱宏勛, 趙雄

『녹모란』이나 『조웅전』이나 작품의 배경이 난세라는 점에서 공통적이고 난세를 무대로 하여 영웅이 등장한다는 점도 동일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녹모란』의 駱宏勛은 태생에 있어서도 비범한 존재이다. 영웅의 일생에 부합되는 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평범하지 않은 趙雄의 출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왕부인이 잉태 七朔에 승상을 여의고 십삭을 차아 解腹하매 활달한 기남자라. 이름을 웅이라 하다.(12-13쪽)

趙雄은 유복자였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부친의 덕을 전혀 볼 수 없는 신세였던 것이다.<sup>4)</sup> 駱宏勛은 趙雄보다 나은 처지이긴 하지만 역시 평범하게 태어난 것은 아니다. 그의 부모는 늦은 나이에야 駱宏勛을 얻게 된다. 그렇지만 駱宏勛은 어릴 때부터 총명함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결국 그의 영웅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반면에 趙雄의 비범한 능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닌 후천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趙雄은 작품 전반을 통하여 무수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그때마다

4) 그가 유복자라는 사실은 몰락한 현실을 대변하고 다가올 고난을 암시해주는 소설적 장치이기도 하지만 趙雄이 앞으로 개아적 인물로서 어떻게 세계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를 동시에 보여주는 필연적인 장치임을 알 수 있다. 안기수, 『『조웅전』에 나타난 욕망의 구조와 의미』, 『어문연구 85』 23권 1호, 1995. 3. 84쪽 참조.

도사와 같은 초월자의 도움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sup>5)</sup> 화산도사, 칠관 도사 등의 도움으로 趙雄은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의 모습은 너무도 나약하게 보인다. 그러나 駱宏勛의 경우는 그와는 상당히 다르게 표현된다. 駱宏勛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초월자의 도움이 아니라 새로운 민간 영웅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예를 들면, 鮑自安과 花振芳 등의 영웅이 나타나서 駱宏勳의 고난을 극복하도록 보조하는 것이다. 이제 駱宏勳과 趙雄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를 통하여 그들의 영웅적 성격을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駱宏勳은 ‘네모난 얼굴에 커다란 귀를 가졌으며 기골이 장대하고 총명하며 힘이 보통 사람보다 강한(方面大耳, 極其魁梧, 又且秉性聰明, 膂力過人)’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그는 외모 면에서 전형적인 武士처럼 보이고 있지만 趙雄은 그와는 달리 儒家의 서생과 같은 용모를 드러내고 있다. 趙雄의 외모를 묘사한 대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웅의 나이 비록 칠세나 얼굴이 冠玉 같고 揖讓進退는 어른을 壓倒하는지라.”(13쪽)

이 두 사람의 외모는 그다지 유사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기본 정신은 儒家의 윤리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공통적인 점을 구비하고 있다.

駱宏勳은 개별적인 행위에 있어서도 영웅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점은 漢天鵬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과 과부 修氏를 구해주는 것 등에 나타난다. 반면에 趙雄의 행위는 개개인에게 베푸는 영웅적 행위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전쟁을 통하여 그의 영웅성을 표출하고 있다.

5) 趙雄은 어린 나이에든 어른을 압도하는 기세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몰락한 가문을 일으키고 민중을 구원할 수 있는 현실적 능력은 결여되어 있다. 그가 왜소한 인간으로부터 영웅적 인간으로 변모하는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자인 것이다. 김현양, 『『조웅전』의 현실성과 낭만성-갈등양상과 인물형상을 중심으로-』, 『연세어문학』 24집, 1992. 3. 86쪽 참조.

駱宏勛은 자신의 암살자까지도 용서하고 배려하는 관용을 나타내고 있다. 濮天鵬이 樂鑑萬<sup>6)</sup>의 사주를 받아 駱宏勛을 죽이러 오지만 駱宏勛이 탁월한 실력으로 濮天鵬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駱宏勛은 濮天鵬을 사로잡고 濮天鵬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난 후에 오히려 돈을 주고 살려 보낸다. 이 점에서 駱宏勛의 호방한 영웅성이 더욱 돋보이고 있다.

그들이 역경을 극복하는 태도를 살펴보면 호기로운 기상이 드러나고 있다. 駱宏勛은 강간당할 뻔한 과부 修氏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구출함으로 인하여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렇지만 駱宏勛은 결코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趙雄은 역경에 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낙천적이면서 운명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趙雄이 걱정하는 모친 왕부인을 안심시키는 대목이다.

“모친은 불효자를 생각지 마옵시고, 千金貴體를 안보하소서. 꿈 같은 세상에 有限한 肝腸을 상케 말옵소서. 인생 --死는 帝王도 면치 못하옵거늘, 어찌 한번 죽음을 면하리까. 짐작하옵건대 이두병은 우리 원수요, 우리는 저의 원수 아니오니, 어찌 趙雄이 이두병의 칼에 죽사오리까. 조금도 염려치 말옵소서.”(21쪽)

이러한 趙雄의 말은 李斗柄의 추적을 피해 도망가는 상황에서 논리적이지는 않았지만 모친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만은 틀림없다. 그의 낙관적인 태도는 앞으로 그가 대성할 인물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희망적인 결말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름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駱宏勛은 나라를 위해 王倫 등의 간신배를 살해하는 데에서 영웅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는 의형 任正千을 모해한 賀世賴를 체포하고 민간 영웅들과 연합하여 간신들을 처단한다. 이처럼 나라의 해충을 제거할

6) 樂鑑萬은 西臺御史 樂守禮의 아들로 『녹모란』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악인 중의 하나이다. 그는 열다섯 남짓한 나이인데 간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각박한 위인이어서 駱宏勛이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며 그를 암살하기 위해 자객을 보내는 악독한 짓을 저지른다.

뿐만 아니라 狄仁傑<sup>7)</sup>과 연합하여 廬陵王을 등극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趙雄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간신 李斗柄을 처단하며 궁극적으로 왕으로 봉해지는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駱宏勛 역시 공로로 인하여 공신으로 봉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駱宏勛의 영웅성 표출은 어릴 때부터 武進士 출신인 아버지의 훈육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의 능력 때문이기도 하다. 그가 비록 여러 민간 영웅들과 연합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백성들의 고향을 찢는 간신을 제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과 비교하여 趙雄은 역경을 겪으면서 구원자들의 증여와 교습을 통하여 그의 능력이 고양되고 있다. 다음은 그의 비범한 능력을 묘사한 대목이다.

슬프다. 세월이 여류하여 作客한 지 삼년이요, 옹의 나이 십일세라. 기골이 웅장하고 힘이 죽히 어른을 당할지라. 행로에 혹 江水를 당하면 부인을 업어 건너는지라.(39쪽)

약간 살아 온 군사 울며 고왈, “무섭고 두렵더이다. 분명 죽은 조웅이 다시 살아와 장졸을 짓치고, 인하여 간 데 업사오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오리까.”(158쪽)

趙雄은 駱宏勛이 현실적인 기반에서 영웅성을 발휘하는 것과는 달리 비교적 환상적인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다음은 趙雄이 악독한 도인들을 물리치는 대목이다.

원수 평생 기력을 다하여 백마혈인검으로 이대의 칼을 치며 축귀문을 고성 대독하니 이대 대경하여 칼을 마하에 던지거늘, 원수 그제야 쇠잔하던 기운을 새로이 가다듬어 다시 말을 들어 이대의 목을 치니, 머리 마하에서 내려지며 치니 아득하여 운무 晦冥하고 지척을 분별치 못하는지라. 원수 축귀문을 口不絶頌하여 고성 대독하니 풍우 지식하며, 문득 보니 한 팔척 神將이 울며 공중으로 날아가거늘, 원수 놀래어 생각하되, ‘이대는 반드시 신장을 겸하였도다.’(172쪽)

7) 狄仁傑(630-700)은 唐代 유명한 재상으로 武后에게 廬陵王(中宗)을 복귀하도록 권유하였다. 『魏州志』에서는 狄仁傑이 駱宏勛 등을 도와 廬陵王을 옹립하는 것으로 묘사하여 영웅 인물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이 때 趙雄은 이미 많은 도술과 병법 등을 연마한 이후이기도 했지만 삼대의 스승인 도사의 예고가 없었더라면 그가 이처럼 성공적으로 악인들을 제거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여러 방면에서 영웅성을 드러내었던 駱宏勛은 애정 추구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행동을 보인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복상 중이기 때문에 花碧蓮과의 혼사를 승낙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에게는 이미 桂娘子라는 약혼녀가 있으므로 둘째 부인을 얻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후에 사람들과 함께 간신을 제거하고 나서 주위 사람들이 花碧蓮과의 혼사를 추진하자 그때는 그가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駱宏勛은 애정보다는 忠孝精神을 수호하는 전형적인 인물<sup>8)</sup>이라 볼 수 있다.

반면에 趙雄은 애정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이다. 그가 張소저를 만났을 적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애정을 쟁취하기 위해서 완력까지도 불사하는 면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趙雄이 張소저를 처음 만나서 하는 대화와 행위이다.

“성현 문하에도 有墻鑽穴之行이 있삽고, 명령과 육례는 제왕과 부귀인의 호사라. 나의 子子單身이 어찌 육례를 바라리오. 다만 내 몸이 媒媿 되고 相逢으로 육례 삼아 백년을 기약하나이다.” 하고 침금에 나아 드니, 蚊負泰山之象이요 우물에 든 고기라. 鴛鴦翡翠之樂을 누리서 금하리오. 인연을 맺었으니 도망키 어렵도다.(50쪽)<sup>9)</sup>

고전소설에서 보기 드문 대목으로 조웅의 영웅성과 과감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조웅의 애정 행위가 강제성을 띠고 있는데 이 점은 영웅의 면모를 손상시

- 
- 8) 전형적 인물에 대해서, 루카치는 ‘한 시대나 한 사회를 대표하는 그 아니면 안 되는 인물’로서 정의하고 예코는 독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인물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의미를 취하기로 하겠다. 움베르토 예코, 『대중의 영웅』, 새물결, 1994, 26-40쪽 참조.
- 9) 趙雄과 張소저는 숙세의 인연에 의하여 중매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 결혼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점은 여타의 고전소설과는 다른 양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조희웅, 『『조웅전』 연구』, 『한국학논총』,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9, 2, 140쪽 참조.

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작품 중에서는 그러한 행위조차도 趙雄의 대담함을 보여주는 예로 보여 주고 있으며 작자는 전혀 거리낌 없이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駱宏勛은 어릴 때부터 훈련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에는 여러 사람들과 연합하여 그의 능력을 십분 발휘함으로써 그의 영웅성을 확고히 한다. 그러나 趙雄은 길고 긴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무능력하고 나약한 어린애의 모습이었다가 후반에는 구원자의 도움으로 후천적 영웅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 2) 악행의 화신-王倫, 李斗柄

고전소설에서 악인의 형상에 대해서 짙진하게 묘사되어 있는 대목은 매우 적다. 악인은 이미 작품 중에 가장 나쁜 인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묘사할 필요가 없었던 까닭이다. 두 작품 중에서 악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은 상당히 있지만 그 중에서 그 악행이 잘 형상화된 인물로는 王倫과 李斗柄을 들 수 있다.

王倫(『녹모란』)은 주인공의 사형 任正千과 의형제를 맺으면서 자신의 진면목을 숨기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吏部尙書인 부친과 禮部侍郎인 숙부의 권세를 믿고 불법을 아무렇게나 자행하며 金陵 建康道의 관리로서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정도이다.<sup>10)</sup> 그는 외모 상으로 잘생기고 우아한 선비처럼 보이며 그의 이름조차도 고상하게 느껴진다.<sup>11)</sup> 반면에 악인 李斗柄의 외모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다. 작품

10) 王倫이 비록 관리라고는 하지만 그의 직무에 대해서는 전혀 서술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가 建康道로 부임하러 가는 일이 나올 뿐이다. 작품 중에서 그에 대한 묘사는 주색잡기에 국한될 따름이다.

11) 처음에 駱宏勳과 任正千은 그의 외모와 친절에 속아 의형제를 맺고 허물없이 대화했다. 그렇지만 王倫은 賀氏에게 접근하기 위한 계산적인 행동이었을 따름이다. 王倫과 달리 괴이한 용모를 가진 任正千은 고전적인 입장에서 보면 악인의 유형으로 규정지어야 할 인물이다. 임정천의 용모는 너무나 이상하여 같은 마을 규수와는 결혼할 수 없었다. 그는 할 수 없이 기녀 賀氏를 자신의 부인으로 삼았는데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그는 장가 한번 잘못 들어서 목숨을 잃을 처지가 되지만 결국 駱宏勳 등의 도움으로 인하여 재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고전소설

중에 묘사된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의 이름으로 보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인물로 추측할 수 있을 따름이다.

王倫은 정치적인 면에서 과오를 나타내기보다는 주로 불륜의 색정적인 행실로 악행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색욕이 과도하여 예쁜 여자를 보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손에 넣었으며 혹시라도 남들이 그에게 죄를 짓게 되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매를 때리게 하였다.

온 성의 사람들이 약간이라도 그에게 죄를 짓게 되면 남녀를 막론하고 한번 통렬하게 때린다. 귀중품에도 구애되지 않고 마구 채찍질하고 그런 후에 명첩을 가지고 定興縣으로 보내 30대를 쳐야 한다. 縣尹은 감히 29대를 때리지 못하고 30대를 다 때려야 하며 또 다른 府로 압송하여 고통을 시험하도록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온 성의 사람들 중에 누가 그를 무서워하지 않으며 누가 그를 떠받들지 않으리오!

(合城之人, 倘有些得罪于他, 不論男女痛打一番, 不拘細軟物件, 捶個盡爛, 然後拿個名帖送定興縣, 要打三十, 縣尹不敢二十九, 足足要打三十, 還要押到他府上驗疼. 因此滿城之人, 那個不懼怕他, 那個不奉承他. 2회, 11쪽)

권력형 비리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다. 王倫은 任正千의 아내 賀氏<sup>12)</sup>를 통간하는 비열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부로 가서 任正千을 도적이라 무고한다. 현운 孫나리는 원고가 王倫임을 알고 난처한 기색을 띠었지만 그가 걱정할 것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아니었다. 그는 “任正千이 영웅으로 용맹한데 우리들 중에는 반드시 쓸만한 사람이 없을 것(任正千英雄勇猛, 我班中之人未必足

의 악인은 천편일률적으로 추악한 용모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임정천의 고전소설의 규칙을 깨뜨리는 인물 중의 하나라 볼 수 있다. 그는 전혀 악인이 아니며 영웅인물 편에 서있는 선인 계열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金明信, 『『綠牡丹』의 사상과 인물 유형에 대한 연구』, 『中國小說論叢』 제18집, 2003. 9. 235-243쪽 참조.

- 12) 賀氏는 妓女 출신으로 비록 용모가 아름답기는 하지만 王倫의 유혹에 넘어가 불륜을 저지르게 된다.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선인의 아내 중에서 불륜을 저지르거나 권력자의 강요에 넘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賀氏는 예외적인 경우인데 그녀가 기녀 출신이기 때문에 가벼운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다. 王倫이 花碧蓮에게도 유혹의 손길을 뻗치지만 그녀는 완강하게 거절하는데 이것은 賀氏와 대조적인 면이다.

用)”이고 잡지 못하면 王倫이 죄를 책망하고 노여움을 풀지 못할까 봐 대단히 두려워한 것이었다.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는 王倫이라도 花碧蓮에게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王倫이 花碧蓮에게도 눈독을 들이고 손에 넣으려고 하지만 그녀가 무예를 할 줄 아는데다가 관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유랑민이라서 성공하지 못한다. 그와 반대로 그가 賀氏를 쉽게 유혹할 수 있었던 것은 任正千과 형제 관계를 맺고 수시로 그 집안을 드나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賀氏는 본래 기생 출신이라 우란한 기질도 있었고 오라비 賀世賴의 부추김도 한몫 하였다. 王倫의 이러한 패륜적 행위는 駱弘勛의 분노를 샀을 뿐만 아니라 훗날 任正千까지도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복수 당한다.

간신인 우승상 李斗柄(『조웅전』)의 경우는 색에 관련된 악행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의 악행은 순리를 거스른 왕위 찬탈과 충신 趙雄을 박해하는 데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宋文帝가 趙雄의 부친이자 좌승상이었던 趙正仁을 총애하자 이에 시기심을 느낀 李斗柄이 조정인을 참소한다. 조정인은 李斗柄의 참소를 받아들여 죽고 만다.(12쪽) 충신의 어이없는 죽음은 아들 趙雄에게 고난과 역경을 겪어지게 만들고 있다. 趙雄이 7세에 입조하여 문체의 총애를 입어 궁 안에 들게 하려는 논의가 있자 李斗柄은 상주한다.

“인재를 보려 하시면 장안을 두고 이를진대 조웅에서 십배나 더한 충효 인재 백여 인이요, 조웅 같은 이는 車載斗量이로소이다.”(19쪽)

李斗柄은 황제가 趙雄을 총애하여 이후에 조정에 들어올 것을 경계하여 처음부터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다. 게다가 李斗柄은 모든 백관들에게 다시는 趙雄을 천거하지 못하도록 엄포를 놓게 된다.

작품 중에서는 李斗柄을 처음부터 간신으로 지칭하고 있고 그에 대해 악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황제가 붕어하고 그가 황위를 찬탈하고자 할 적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있으니 이 점은 기이한 현상이다.

일일 조신이 노소 없이 侍從寮에 모여 국사를 의논할 새, 이두병이 逆謀의 뜻을 두고 옥새를 도모코자 하니, 조정 백관이 그 말을 좃지 아니할 이 없는지라.(20쪽)

아무리 李斗柄의 권한이 컸다고는 하나 자기 목숨을 걸고 부당함을 아뢰 충신이 없다는 게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점 역시 앞으로 등장할 趙雄의 영웅성을 돋보이게 하는 동시에 李斗柄의 독재적인 능력을 설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李斗柄의 악행은 주로 趙雄과 관련된 것이고 그 외에는 왕권과 관계가 있다. 한번은 趙雄이 李斗柄의 악행을 고발하는 문장을 벽보에 붙이자 화가 난 李斗柄은 그를 체포하고 명한다. 그렇지만 趙雄이 미리 도망을 쳤기 때문에 도저히 체포할 수 없게 되자 李斗柄은 다음과 같은 명을 내린다.

순식간에 경화문 관원을 나입하니, 황제 盆頭에 不問曲直하고 내어 燒弑하라 하니 즉시 내어 소시하고 아뢰니, 황제<sup>13)</sup> 하령 왈, “충렬묘와 조웅의 집을 다시 燒火하라.”(27쪽)

그는 관련 책임자를 불태워 죽이는 동시에 충렬묘와 趙雄의 집을 불살라 버리게 만든다. 李斗柄은 죄 없는 관원에게 자신의 화를 전가하면서 악독한 성질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王倫은 주로 색욕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악행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李斗柄은 권력을 통하여 충신을 박해하고 왕위를 찬탈한다는 면에서 악덕을 나타내고 있지만 모두 권력자의 악행을 표출하고 있는 면에서는 공통적이다.

---

13) 작품 중에서 李斗柄이 황위를 찬탈하기 전에는 간신이라는 수식어가 없지만 그 이후에는 황제라는 칭호로 등장한다. 이 점은 작자가 어휘 사용에 있어서 미숙함을 드러낸 것이거나 필자의 오기일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 3) 열혈녀와 숙녀-花碧蓮, 張小姐

작품 중에서 여주인공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뉘고 있다. 즉 열정적으로 애정을 추구하는 열혈녀와 儒家의 부덕을 보여주는 숙녀가 있다. 열혈녀로는 花碧蓮(『녹모란』)이 있고 숙녀로는 張소저(『조웅전』)를 들 수 있다.

花碧蓮은 文과 武를 겸비한 여성이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독서에 매진하여 글 솜씨가 남을 놀라게 할 정도였으며 창과 칼 모두 사용할 줄 알았다.<sup>14)</sup> 게다가 그녀는 영웅호걸에게 시집가야겠다고 결심하고 ‘玩把戲’로써 이름을 날리며 온 천하를 주유하며 남편을 선택하려 하였다. 그러다가 그녀가 駱宏勛에게 반해서 자신의 애정이 관철시키려 하지만 그것이 좌절되자 상사병을 앓는다.<sup>15)</sup>

그러나 花碧蓮은 애정 성취에 대한 욕구가 영웅적 행적보다 더 많은데, 그 점은 그녀가 대담하게 애정을 추구하고 있는 데에서 나타난다. 花碧蓮은 “맹세코 평범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며 영웅에게 시집가기를 원하(立誓不婚庸俗, 願待市櫛于英雄)”는데, 이것은 그녀의 애정 추구 방식이 자주적인 동시에 매우 진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sup>16)</sup> 한 번은 그녀가 四望亭에서 원숭이를 잡다가 오랫동안 안 수리를 하지 않은 정자 위에서 실족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駱宏勛이 그녀를 받아 주어 혼미한 가운데에 그에게 안기게 된다.

이때 花碧蓮은 이미 8,90할 정도 정신이 들어서 아빠와 엄마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駱나리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몰래 눈을 뜨고 정말 駱宏勛의 품속에 있

14) 花碧蓮은 기존 애정소설에 등장하는 연약하고 가녀린 여주인공과는 다르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대로 끝까지 애정을 쟁취해낼 수 있는 인물이자 영웅적 행적을 갖춘 여성 영웅으로도 볼 수 있다.

15) 鮑金花도 자신의 남편 濮天鵬을 사랑하여 결혼한 후에 봉건 예교의 속박을 받지 않고 솔직하게 행동하며 자존심 강한 여성 영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鮑金花는 愛情보다는 俠義에 더 치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6) 花碧蓮은 駱宏勛이 이미 정혼녀가 있다는 사실을 개의치 않고 둘째 부인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이것은 그녀의 진보적인 일면과 상충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駱宏勛은 花碧蓮의 애정에 애매 모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고의로 눈을 감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척하며 駱宏勛의 품에 여러 번 과고들었다.

(此時花碧蓮已醒了八·九分, 耳中聽得爹娘俱說: 多謝駱大爺相救, …遂暗暗將眼睜將開: 真是駱公子抱在懷中. 故意將眼合上, 只做不醒的神情, 將身子向駱大爺身上又貼了兩貼. 20회, 109쪽)

그녀는 몰래 눈을 뜨고 정말 駱宏勛의 품속에 있는 것을 알았지만 고의로 눈을 감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척하며 駱宏勛의 품에 계속하여 과고들고 있다. 이러한 대담한 행동은 그녀의 적극적인 애정을 표현해 내는 것이다. 반면에 張소저는 趙雄이 월장하여 들어와서 자신에게 애정을 갈구하자 儒家의 교육을 받은 숙녀답게 다음과 같이 애결한다.

“窈窕淑女는 군자의 好逮라. 침인들 어찌 空房 獨枕을 좋아하리오마는, 先塋을 생각하니 九代 進士의 후예라. 부모의 명령 없삼고 六禮를 행치 못하였사오니, 어찌 허신하여 선영의 죄인이 되고, 門戶에 욕이 밋사오면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바라긴대 마음을 돌이켜 돌아가 後期를 정하소서.”(59쪽)

이처럼 張소저는 후일을 기약하자고 말하면서 趙雄의 마음을 돌리도록 애를 쓴다. 또한 趙雄이 대장군으로서 위엄을 떨친 이후에 위국 왕이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하자 張소저는 대장부 처세함에 침이 없을 수 없다면서 자신이 미리 살펴보고 정하겠다고 한다. 그녀는 시비를 데리고 위국 궁중에 들어가 두 공주를 살펴보고 그녀들의 용모와 재덕에 감탄하여 집으로 돌아와서 趙雄에게 치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요조숙녀는 군자의 好逮라. 이는 원수 배필이오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리오.”(139쪽)

張소저는 투기하지 않는 덕행을 실행하고 있는데다가 趙雄에게 축첩을 권유하여 그의 부담을 덜어준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에게 꿈과 같은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셈이다. 趙雄은 이미 금련을 첩으로 취한 바 있었는데(105쪽) 위국의 공주를 취하는데 있어서는 기이하게도 사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은 부인을 취하는 것과 첩을 들이는 차이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이 부분은 張소저의 너그러운 태도를 부각하기 위해서도 서술할 가치가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花碧蓮은 악인을 개인적으로 상대함에 있어서 강건함을 드러내고 있다. 음란하고 호색한 尙書의 아들 王倫이 ‘把戲’를 상연해 달라는 명목으로 花碧蓮을 王府로 유인하여 희롱하려 하자, 그녀는 크게 노하여 주먹을 뺀어서 王倫을 사로잡고 王府 하인들과 대결을 벌인다. 결국 그녀는 하인들을 통쾌하게 두들겨 패주고 저택 안의 온갖 물건들을 깨부수었으며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나서야 유유히 밖으로 빠져 나오게 된다.

花碧蓮은 여러 호걸들과 간신을 제거하는 영웅적 쾌거에도 참여하고 있다. 張소저가 남편 趙雄의 내조에만 힘쓰고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花碧蓮은 간신 王倫을 잡기 위해 鮑金花와 함께 王倫의 백여 명의 시위에게 약 탄 술을 먹이기도 하고 京城의 무예 시합에 참가했다가 우승하기도 한다. 그때 간악한 재상 張天佐가 무예 시합을 통해 아들의 아내로 鮑金花를 간택하자 花碧蓮은 들러리가 되어 張天佐의 집에 들어가서 張天佐 형제, 王懷仁, 欒守禮 일가 모두 7,80여 명을 섬멸하였다. 또한 花碧蓮은 長安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사스런 道士와 싸움을 벌여서 단칼에 목베어 죽이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그녀는 어전에 나아가 상을 받는다.

이상으로 볼 때 花碧蓮은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열혈녀이자 여성 영웅이며 張소저는 趙雄의 내조에 힘쓰는 숙녀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 4) 민간 영웅과 구원자 - 鮑自安, 花振芳, 月鏡도사, 天官도사

두 작품 중에서 영웅 인물을 영웅답게 만드는 데 일조하는 주변인물이 있는데

그들은 민간영웅의 기상을 띤 盜俠과 초월적 능력을 가진 구원자의 형상으로 활약하고 있다.

鮑自安(『녹모란』)은 명성이 혁혁한 육십 여세의 盜俠<sup>17)</sup>으로 대단히 의기를 중시하고 오로지 好漢과 교유하며 은혜를 알면 반드시 보답한다. 그의 報恩 방식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곤경을 구해 주는 것이다.

駱宏勛이 자신의 사위 濮天鵬에게 은을 증정하여 돌려보내자 鮑自安은 여러 차례 목숨을 걸고 駱宏勛을 구출한다. 駱宏勛이 嘉興縣에서 과부 修氏를 도와주었다가 무고 당하여 현아로 잡혀가자 鮑自安이 친히 현성에 잠입하여 미혼향으로 간수를 기절시키고 駱宏勛을 무고한 간부와 음부를 생포한다. 또한 鮑自安은 무고 당한 修氏를 구출한 후에 그녀가 의지할 데가 전혀 없음을 알고 의녀로 삼기도 한다.

또 駱宏勛과 余謙이 중상을 입어 생명이 경각에 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鮑自安은 밤낮으로 揚州로 달려가서 해독약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치료한다. 그리고 딸 鮑金花의 권유에 따라서 생명을 무릅쓰고 무예시합장에 올라가 駱宏勛을 해친 朱彪와 시합한다. 그는 적의 힘을 빠지게 하는 지략을 써서 朱彪를 시합장 아래로 나가떨어지게 하여 駱宏勳의 분을 풀어 준다. 이처럼 鮑自安은 駱宏勳을 구출하기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駱宏勳이 山東에 갔을 때 賀世賴에 의해 강도라 누명쓰고 체포된 일이 있었다. 余謙은 탈출한 후에 山東節度使 狄仁傑에게 찾아가 고소를 하였다. 그러자 狄仁傑은 사람들에게 명하여 한편으로 賀世賴를 압송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 余謙에게 명하여 관리와 함께 江南으로 가서 鮑自安을 데리고 와서 증인으로 삼게 하였다. 鮑自安은 오랫동안 협의를 행하다 많은 탐관오리들을 죽였기 때문에 자신이 관부에 투항함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었으나 駱宏勳을 구하기 위해 개인의 안위를 도외시키고 결연히 山東으로 간다.

17) 盜俠는 도적으로서 협행을 행하는 인물이라 볼 수 있는데 淸代의 도협은 대부분 조정에 귀순하게 된다. 게다가 이 때의 도협은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서 도적이 되었으며 탐관오리나 악덕 지주의 재물을 약탈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적 임궽정이나 서양의 로빈 후드와 같은 부류의 인물이다.

반면에 『조웅전』에 등장하는 도사나 망령들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영웅을 도울 필요가 없다. 그들은 이미 유한한 인간의 생명을 초월한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꿈을 통한 예시, 보물의 증정, 무예 교습 등의 도움을 통하여 趙雄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趙雄이 왕부인과 함께 李斗柄을 피해 도망치던 중에 왕부인과 헤어지게 된다. 趙雄의 행방을 알지 못하고 애태우던 왕부인은 깜박 잠이 들고 만다. 그런데 갑자기 꿈속에서 조정인의 혼백이 나타나서 부인에게 혼계한다.<sup>18)</sup> 다음은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대목이다.

이날 밤에 부인이 비각에서 잠깐 졸더니, 비몽간에 승상이 와 이르되, “웅이 앞으로 지나거늘 부인이 어찌 모르고 잠만 자시나이까.” 하거늘, 문득 놀라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37쪽)

막다른 골목에 몰린 趙雄과 왕부인은 月鏡 도사의 도움으로 궁지에서 벗어난다. 잠깐 동안 피난처에서 평화로운 상태에 있던 趙雄은 華山도사를 만나게 된다. 華山도사는 趙雄에게 보검을 하사하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다. 趙雄은 화산도사가 파는 보검을 보고 가지고 싶었으나 주저하며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화산도사가 趙雄임을 알아보고 보검을 증여하고 사라진다. 다음은 화산도사의 행적을 시로 표현한 대목이다.

화산도사 한 소매가 무거우니,  
 행색이 칼 파는 선비 같도다.  
 사람마다 칼 값을 물은 즉,  
 노인 알 내 기다리는 사람이 있노라.  
 분분한 저자에 몇 남자 모았는고.

18) 꿈은 고전소설 중에 미래를 예시하거나 도움을 주기 위한 장치로 설정되고 있다. 조웅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꿈은 결국 깨우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왕부인이 趙雄과 조우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써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천인이 지나가되 팔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웅아 소식을 놀더러 물어 알리오.  
앞으면 턱을 꺾고 서면 멀리 보는지라.(48, 49쪽)

화산도사가 칼을 팔러 나오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국 趙雄에게 증여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다.

天官도사의 경우는 趙雄에게 무예와 도술 등을 가르쳐서 趙雄이 영웅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고 있다. 또한 망령 중에서 關西 장군 黃達과 그 애첩이 비교적 두드러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밤중에 혼령이 나타나자 趙雄은 축귀문을 외우며 그녀를 쫓아내지만 관서 장군의 혼령과 그의 애첩이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갑주와 삼척검을 하사한다. 다음은 관서 장군이 등장하여 趙雄에게 하는 말이다.

그 선비 대왈, “나는 본디 浩然한 사람으로, 關西에서 약간 將略이 있어 전장에 다니옵더니,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인하여 荒涼之客이 되었사오니 어찌 원이 없사오리까. 아까 갑옷 입고 뵈옵기는 장군의 장락을 보려 하였삽거니와, 의외에 장군의 행차를 만나오니 이는 나의 雪冤之秋라. 어찌 즐겁지 아니하리이까. 그 미인은 나의 평생 사랑하는 寵妾이라.” 하며 문을 열고 미인을 부르니, 그 미인이 甲冑와 三尺劍을 안고 들어와 앉으니, 그 선비 왈, “이 갑주와 칼로 성공하와 소장의 積年抱冤을 씻어 주시면 은혜 白骨難忘이라. 돌아오시는 길에 옷과 칼을 무덤 앞에 묻어 주소서.”(75쪽)

이상에서와 같이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망령과 도사들은 趙雄을 좀더 영웅에 가깝게 만드는 조력자들이다. 이들은 나약한 존재였던 趙雄을 영웅으로 거듭나게 하는 커다란 역할을 하지만 鮑自安이나 花振芳처럼 현실 사회에 직접 개입하여 악인을 제거하지 않는다.<sup>19)</sup>

그와는 달리 鮑自安은 자신이 직접 간인과 악인을 죽이는 영웅적 행위를 하고

19) 영웅 편인 도사는 직접 악인을 용서하지 않는 반면에 악인 편인 도사는 현실에 개입하여 자기 자신이 전쟁에 참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조웅전』의 일대, 이대, 삼대는 도술을 수련한 인물로 趙雄과 반대편에 참가하여 대적하고 있다.

있다. 그는 三官鎭에서 사람과 말을 모아 매복하고 建康道에 부임하는 王倫과 음부 賀氏를 포획하러 간다. 鮑自安은 딸 鮑金花와 여성 영웅 花碧蓮에게 약을 탄 술을 팔게 하여 王倫 주위에 있는 100여 명의 侍衛들을 취하여 쓰러지게 만든다. 三官廟의 和尚이 살인에 연루될까 두려워하자 鮑自安은 사당 중에서 사람을 잡지 않도록 하고 심야에 미혼약을 써서 문지기 화상을 기절시킨다. 그리고 나서 사당 속의 王倫의 거처로 들어가 많은 하인을 죽이고 금은 보화를 취하였으며 王倫과 賀氏를 생포하고 그들을 山東으로 압송한다. 또한 鮑自安은 기타 영웅 인물들과 함께 四杰村에서 京城으로 압송되는 영웅 駱宏助를 구하게 되고 잔학무도한 朱彪와 전 가족을 죽이며 賀世賴를 체포한다. 苦水鋪에서 鮑自安은 사사로이 법정을 설치하고 생포한 악인에게 그들의 천인공노할 악행을 일일이 공개하며 극악무도한 王倫, 賀世賴, 賀氏를 처단하고 있다.

또한 鮑自安은 호걸들을 데리고 간신을 제거하여 영웅성을 표출한다. 그는 경성에 도착하여 狄仁傑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狄仁傑은 그가 비록 도적이지만 본래 충의를 품고 있는 영웅임을 알고서 그에게 병사를 일으켜 간신을 제거하자고 제의한다. 鮑自安은 駱宏助 등과 함께 張天佐가 머느리를 구하는 기회를 포착하여 간신들을 일망타진한다. 또 狄仁傑과 함께 潼關을 통과하고 薛剛, 薛颯 등과 연합하여 武家軍을 쳐부수고 廬陵王을 등극시킨다. 이처럼 그는 비록 녹림 출신이었지만 영웅적 기상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분연히 행동하였으므로 민간 영웅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花振芳(『녹모란』)도 鮑自安과 마찬가지로 충직하고 협의심이 많으며 뛰어난 용력과 담력을 가지고 있는 盜俠이다. 본래 유명한 육지의 響馬였는데 실제로 海盜 鮑自安과 마찬가지로 조정 내에 간신이 정권을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도적으로 전락하였다. 그는 딸 花碧蓮의 남편을 고르기 위하여 강호에서 기예를 팔고 다니다가 定興縣에서 영웅인물 任正千과 駱宏助를 알게 된다. 그의 개인적인 영웅적 행위는 任正千을 감옥에서 탈출시키는 데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는 호걸 任正千이

간악한 王倫에 의하여 고통받음을 알고 불의를 시정하기 위해 행동한다. 이와 같이 그는 법률 제도에 구속을 받지 않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그는 많은 영웅인 물들과 함께 계교로 간신 張天佐 등을 죽임으로써 나라와 백성을 위한 영웅적 행동을 실행하고 있다. 이후 그는 狄仁傑을 보호하여 潼關을 쳐부수고 廬陵王을 맞이하게 된다. 그는 황제를 옹립한 공로로 인해서 定國公에 봉해지는데 그 역시 민간 영웅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하겠다.

#### 4. 맺는 말

『녹모란』은 淸代에 창작되었고 『조웅전』은 朝鮮시대의 작품으로 모두 영웅소설의 대표작이다. 이러한 영웅소설 계열의 작자는 대부분 중하층의 지식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영웅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어지러운 시대상황을 필요로 한다. 『녹모란』에서는 唐代 則天武后 시기를, 『조웅전』에서는 송나라 문황제 23년이라는 혼란한 시대를 배경으로 설정하여 영웅의 출현을 용이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작품 중에서 난세의 영웅인 駱宏勛과 趙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駱宏勛은 비록 민간영웅들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자신만의 능력으로 영웅적 행위를 완성하지만 趙雄은 나약한 어린애의 모습에서 초월적 능력을 가진 도사 등의 도움으로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고 있다.

駱宏勛은 애정 추구에 있어서 비교적 소극적이지만 趙雄은 상당히 적극적이다. 趙雄이 張소저와 만나 본인이 매파가 되어 구애를 하고 월장하여 張소저와 인연을 맺는 장면은 상당히 색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반면에 駱宏勛은 花碧蓮의 애정을 구하는 데에는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花碧蓮이 적극적인 구애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 작품은 모두 열렬한 자유 연애를 지향하고 있지만 열렬

함의 주체가 달리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조웅전』에서는 남성인 趙雄이 주체가 되고 있고 『녹모란』에서는 여성인 花碧蓮이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악행의 화신인 王倫과 李斗柄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王倫은 주로 색정적인 면에서 악행을 드러내고 있고 李斗柄은 권력욕과 관련하여 趙雄과 대립하면서 악행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王倫은 외모상으로 선인처럼 보이는 악인이지만 李斗柄의 경우는 외모에 대한 묘사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두 작품의 여주인공 花碧蓮과 張소저는 모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인물로 花碧蓮은 애정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駱宏勛의 애정을 추구하고 있지만 張소저는 趙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張소저는 趙雄과 결연한 후에 儒家의 덕목을 갖춘 숙녀로서의 모습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영웅을 보조하는 인물로서 盜俠과 도사가 있다. 도협은 鮑自安과 花振芳으로 대표되는데 비록 도적으로 활동하지만 나라에 충심을 가진 인물로 駱宏勛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민간 영웅적 기상을 드러내고 있다. 도사는 趙雄을 영웅답게 변모시키는 존재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月鏡도사와 天官도사가 대표적이다.

#### <參考文獻>

- 無名氏 著, 『綠牡丹』, 浙江古籍出版社, 1985.  
 박재연 교주, 『녹모란』, 선문대 번역문헌연구소, 1998.  
 김기동·전규태 편저, 『조웅전/장한절효기』, 서문당, 198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엮음, 『고전소설의 기초연구』, 태학사, 2001.  
 金明信, 『清代 俠義愛情小説의 研究』, 고려대 박사논문, 2000. 8.  
 송옥형, 『『조웅전』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0. 7.  
 안기수, 「『조웅전』에 나타난 욕망의 구조와 의미」, 『어문연구 85』 23권 1호, 1995. 3.

- 조희웅, 『『조웅전』 연구』, 『한국학논총』,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9. 2.
- 김현양, 『『조웅전』의 현실성과 낭만성-갈등양상과 인물형상을 중심으로-』, 『연세어문학』 24집, 1992. 3.
- 윤경수, 『『조웅전』의 신화적 수용양상』, 『한성어문학』 19, 2000. 7.
- 竺洪波, 「試論『綠牡丹』的思想意蘊」, 『明清小說研究』, 1988. 제4기.
- 竺洪波, 「『綠牡丹』의藝術成就」, 『明清小說研究』, 1989. 제4기.
- 朴在淵, 「綠牡丹研究」, 『중국소설연구회보』 제7호, 1991. 9.
- 金明信, 「『綠牡丹』의 사상과 인물 유형에 대한 연구」, 『中國小說論叢』 제18집, 2003. 9.
- 움베르토 에코, 『대중의 영웅』, 새물결, 1994.

<中文提要>

《綠牡丹》和《趙雄傳》兩部作品都是英雄小說之類的。這兩部作品就有時代和空間之區分。《綠牡丹》是清代的作品,《趙雄傳》是朝鮮時代的作品。這些英雄小說的作者差不多都是中下層的知識分子。英雄人物需要所謂混亂的時代情況。《綠牡丹》的背景是唐代則天武后時期,《趙雄傳》的背景是宋代文皇帝時期。這樣的時代背景使英雄容易出現,所以亂世的英雄駱宏助和趙雄在登場着。《綠牡丹》的男主角駱宏助雖然是受到幫民間英雄的幫助,但是他基本上自己的能力來完成英雄的行為。趙雄本來是從懦弱的孩子開始,通過超越者的教習或者贈與,變成真正的英雄了。駱宏助是在愛情問題上比較消極的,但趙雄是非常積極的人物。從古典小說的觀點來看,趙雄可以說是自由戀愛的頂上。代表惡行者是王倫和李斗柄。王倫主要是在色慾上代表惡行,李斗柄是以有關權力的狀況來代表着惡行。女主角花碧蓮和張小姐是比較相對的人物。花碧蓮是在愛情方面上非常積極的熱血女,但張小姐是遵守儒家傳統的淑女。補助人物有盜俠和道士。盜俠是以鮑自安、花振芳來代表,盜俠具有民間英雄的色彩,他們雖然是盜賊的身分,但是以國家的忠心來除去奸人。道士是使趙雄造成英雄,就是像月鏡道士、天官道士之類的人物。

關鍵詞 綠牡丹、趙雄傳、英雄小說、駱宏助、趙雄、花碧蓮、亂世、熱血女、淑女、民間英雄、教授者